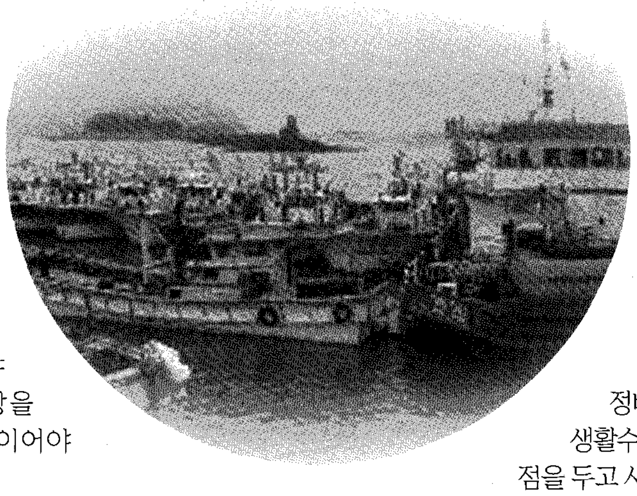
어촌·어항·어장개발 한데 어우러져야

지난 7월5일부터 7월8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린 제7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개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증양식어업을 배려한 어항 · 어장 정비'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국 어항협회장을 비롯해 산 · 학 · 연에서 참여한 권위있는 연구진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그 어느때보다 크게 돋보이는 회의였다고 양국 관계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어항 업계가 안고 있었던 어항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단순히 어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양국 협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역시 이 점에 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세상은 급속히 변화한다. 그러나 어항은 거대한 조형물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는 이 시대적 변화와 무관한 것처럼 간주해 왔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착각이란 사실을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앞으로 어항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촌 · 어항 · 어장을 아우르는 종합개발 발전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뭇 충격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다. 통상 어항이 갖는 의미는 어선과 연관돼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 왔었다. 어선 정박과 수산물 양륙장에서부터 배후지에 들어선 가공공장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어항이 지닌 일반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번 제7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의 주제에 등장하는 '증양식어업을 배려한 어항 · 어장 정비' 는 뜻밖에도 이런 통상의 개념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일본 역시 이렇게 고착된 어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새로운 방향으로의 대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사카이 스나오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장의 인사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1년에 수산기본법과 어항어장정비법을 제정해 한정된 수산자원을 관리 · 배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고착된 어항의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지난해 일본의 협회 명칭을 종래의 '전국어항협회' 에서 '전국어항어장협회' 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새삼 재인식할 수 있다.

일본은 어촌 · 어항 · 어장 등의 공공 기반시설에 근본적으로 충실하지 않고서는 수산업 발전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역시 조만간 제정될 어촌어항법에 따라 협회 명칭도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바뀌게 되겠지만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 있다는 점에서 솔직히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타하라 후미오 일본 수산청 장관의 축사에서도 이런 어항에 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발견되고 있다. 타하라 후미오 장관은 일본의 수산업을 안정적인 수산식품의 제공과 지역경제 진흥의 선두 산업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어촌 · 어항 · 어장의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조업 확보, 생활수준의 향상, 어업생산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양국이 서로 교차해서 개최하는 이 회의가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외교의 차원을 넘어 수산업 발전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렇게 산 · 학 · 연이 함께 노력하면 일본을 따라잡는 일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항인 자신의 의식이 보다 넓고, 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뒤처지면 도태할 수 밖에 없다.